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 현실화 촉구

간호협회-노인간호사회 성명서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에 대해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월 24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된 정책제도이므로 간호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선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협회는 간호사 배치기준 등을 관계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필요성을 알리고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안내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요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한계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거듭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사정과 간호판단이 필요해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현실적인 간호인력 인건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 시행사업인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 (초임)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이라면서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2년 이상 경력)과 24시간 3교대라는 근무조건을 고려한다면 간호사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만9000원(야간수당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간호사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우려했다.

셋째, 처치재료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전문요양실 입소자는 간호처치가 필요한 1, 2등급으로 재료 소모가 많고, 주 1회 촉탁의 진찰 및 방문 시에 간호처치가 발생하게 된다"며 "간호처치의 발생 횟수와 재료 소모 정도를 고려해 현재의 재료비 기준단가는 상향돼야 하며, 월 1만원의 처치재료비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기준은 '인력 인프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투자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기준은 '인력 인프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간호사 등 재택의료팀에서 서비스 제공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으로부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곳을 선정하고,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환자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재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팀은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해 상시적 환자관리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다.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WHO 권고 가장 효과적 금연정책 '경고그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가 2년 만에 전면 교체됐으며,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는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경고그림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했다.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했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했다.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위험 증가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했다.

유통상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올해 1월말 무렵부터 시중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고그림은 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담배판매량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향후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 인권침해 개선방안' 토론회

〈1면서 계속〉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해 적정한 수가보상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인증 및 평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간호사가 오래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이처럼 간호사의 돌봄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인권침해 문제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환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데 간호협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4년차 간호사는 "괴롭힘은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의 거대한 악순환 속에서 발생하며, 일할 간호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간호사가 없는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간호사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는 "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건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폐쇄적인 병원 환경과 간호조직문화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세부과제들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간호전담 태스크포스팀이 곧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간호협회와 함께 조직문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사들이 맡은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간호사의 인권이 보장돼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사람이 부족한 문제에서 출발한다"면서 "간호협회는 최우선적으로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2차적으로 수가체계 등의 보완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와 불법적인 행태가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도록 간호계의 자정노력과 동시에 간호사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어 행복한 간호사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7일부터 시작됐다.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올해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곳)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설 연휴에 따라 2월 7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31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 면허시험 간호사 국가고시 위생사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보건교사 특강

2019.1.9 (수) 개강

노성신 기초간호과학 응급간호 학교성인질환 노인간호

오정화 아동간호 모성간호

김희영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3人의 전공·전문교수진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완료된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QR코드